



# 목판인쇄 하던 청주 원흥사터 지킨다

사진제공=청주생태교육연구소터

직지 72년 전<금강경> 인쇄한 곳  
개발반대 10만 서명운동 전개  
토지공 총복지사 17일 시굴조사

조선왕조실록에 목판 금강경 인쇄지로 기록된 청주 원흥사지가 시굴조사된다. 이는 최근 충북지역 45개 시민단체가 “청주가 세계문화유산인 금속활자 직지 심경을 탄생시켜 고인쇄문화의 시원이 된 것은 그보다 72년 앞서 고려 목판본 금강경이 인쇄된 원흥사에서 기원하는 만큼 사지의 발굴·보존이 시급하다”는 성명과 함께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청주시 산남3지구개발청 청주지방검찰청과 아파트 단지 예정지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사는 17일 문화재청에 원흥사 방죽 북서쪽 구릉산 기슭 1만여평의 시굴조사표본조사를 신청했다. 이날 안으로 시굴 조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토지공사 충북지사는 원흥사 방죽 일대가 원흥사지라는 증거나 유물이 나오면 토지이용 계획을 수정하고, 문화재 현

장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청주 원흥사는 현재 자세한 사적기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다. 다만 ‘조선왕조실록’과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조선 초기까지 현재의 원흥사 터에 규모가 크고 목판 금강경을 출판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서대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 원흥사가 범주사와 함께 고려시대 교종을 대표하는 법상종의 사찰이었음을 밝혀주는 자료도 있다. 범주사의 미수대사 비에 법상종(法相宗)의 고승이었던 자정 국존 미수대사가 원흥사에 주석 중이던 종연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 최근에는 부산시에 사는 박오씨가 소장중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간기(刊記)에 고려 충렬왕 31년인 1305년에 육구거사 박지오 등의 발원으로 청주목에 있는 원흥사에서 책을 간행 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간기에 나오는 ‘원흥’이라는 지명은 청주에서 산남지구 안 원흥사 방죽 밖에 없고, 주민들도 이 일대를 원흥사

지로 알고 있으며, 구동산 자락에서 주춧돌과 탑부재, 고려토기 등이 다수 발견되는 상황이다. 한편, 생태교육연구소 터 등 충북지역 45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원흥사 방죽 두꺼비마을 생태문화보전시민대책위원회와 직지포럼은 공동으로는 19일 청주시 의회 회의실에서 ‘원흥사와 흥덕사-목판과 금속활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승환 충북민예총 회장과 토론회자인 박종 통시의원 이국홍 충북문화재 연구관 등은 “목판 금강경을 인쇄한 원흥사 주위에 철 제련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흥사에서 인쇄된 목판은 금속활자 직지 인쇄의 선행단계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원흥사가 금속활자본 ‘직지’를 인쇄한 인근 흥덕사의 본찰이었을 것으로 보고 택지개발 계획 인가의 전면 유보를 충북도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삶이 기도로 이어지는 날까지

부산 미타암 진여심보살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인 옹두산 공원을 오르다보면 계단 오른쪽으로 미타암이 있다. 부산 남포동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미타암에는 그 계단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 내리는 보살이 있다. 진여심(49배정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그 보살은 일년 전까지만 해도 ‘막갈라’라는 세례명으로 불리던 천주교 신자였다. “집안의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무언가 내가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 절을 찾게 되었다”는 진여심 보살은 그렇게 10년 동안 다니던 성당과의 인연을 끊고 미타암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것이 지난해 가을경이다. 어머니, 할머니를 따라 갔던 절에서 결혼질로 배웠던 인사법으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린지 2달 후, 진여심 보살은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이었기에 좀더 철저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100일기도는 매일 새벽 5시 먼 어김없이 일어나 미타암 계단을 오르게

창 진행중인 불사와 사중 대소사를 챙기게 되면서 지금은 세 번째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삶이 곧 기도로 이어지는 게 목표지요.”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고단함을 감수하는 이유다. 건강을 염려하며 기도를 만류하던 남편 신정환(50) 거사도 거사법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도반이 되었다. 늦깎이 불자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일 금강경반, 매월 열리는 1080배기도 등에 적극 참여



◇매일 미타암을 찾아 기도하는 진여심보살.

10년 천주교 신자

1년전 불현듯

절 찾게 돼

늦깎이 극복위해

1080배 기도 참여등 열심

했다. 미타암과 가까운 곳에서 피부미용실을 하고 있는 진여심보살은 손님예약이 없는 날이면 사시예불에도 참여해 기도를 이어갔다. “처음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동생 때문에 고통을 받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애기 끝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기도 후 스스로의 마음이 편해진 것은 물론이고 동생이 한고비를 넘기고 미타암의 공양주가 되어 한

하다 보니, 제법 마음의 중심이 섰다. “스스로 다잡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진여심 보살의 기도는 이제 미타암 불사 원만회향의 원력으로 승화되고 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중심을 제대로 세워 정진하고 싶다”는 진여심 보살의 초발심은 타성에 젖은 사람들에게겐 보이지 않는 채찍이 되고 있다. 천미희기자

### 무안 연꽃방죽 세계 기네스북 오른다

#### 국내 최대 백련 서식지로 내년 결정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마을 연꽃방죽이 국내 최대 백련(白蓮)서식지로 기네스북에 오른다. 무안군은 15일 회산마을 일대 33만㎡(10만여평) 연꽃방죽이 국내 최대 백련서식지로 인정돼 최근 기네스북 국내 사업권자인 (주)한국기네스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기네스로부터 인증서를 받음에 따라 회산 연꽃방죽의 세계 기네스북 등재 여부는 인증기관인 영국 월드레코드사의 확인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다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연꽃과 관련이 깊은 스님과 불자들의 의견을 들어 자연친화적인 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원우기자

### 예산 수덕사 30일 능인선원 상량법회

#### 10억여원 들어 중창불사, 올 가을 완공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주지 법정)는 30일 오전 10시 산내암자 정혜사 능인선원 상량법회를 개최한다. 10억여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1월 20일부터 대대적인 중창불사에 들어가 올해 가을 완공예정인 정혜사 능인선원은 선방(40평) 개조, 전통양식의 요사채(60평), 목욕탕(30평), 우물, 해우소(화장실)가 건립중이다. 정혜사 능인선원은 근대 한국불교의 지주와 동량이 되었던 경허, 만공스님을 비롯 정각, 금오, 춘성, 청담, 해암, 벽

조스님 등 수많은 눈 푸른 남자들이 옹양정진했던 곳이다. 599년 지명법사가 창건한 정혜사 능인선원은 불사를 위해 지난해 동안겨부터 잠정폐쇄된 상태다. 김원우기자 문의 041) 337-6565.

### 강남 봉은사, 서산·사명 장학회 설립

#### 장학금 전달 등 인재양성에 나서

강남 봉은사주지 원혜가 15일 서산·사명 장학회 현판식을 갖고, 불교인재양성에 나선다. 임진왜란당시 승병을 지휘했던 서산스님과 사명스님의 유지를 받든다는 취지에서 명명된 서산·사명 장학회는 앞으로 중앙승가대 학인스님들과 명성여중 학생,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원우기자



주현의 말  
도경스님 미타암 주지

초심자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신심이 깊고 한결같이 기도에 임하는 모습에 많은 신도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8월 준승경 시면선방을 갖춘

###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등 포교사 될 것

도심도량의 면모를 갖추면 미타선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본격적인 도심포교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동생과 남편까지 불연을 맺게 한 진여심 보살은 앞으로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찰의 일등 포교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제 3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어린이를 부처님처럼...』 (신나고 짝나는 우리절 짝!)

1. 일 시 : 불기2547년 6월 21일(土) 오후 2시 ~ 22일(日) 오후 3시
2. 장 소 : 봉은사 보우당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02-511-6070  
【교통편 안내】 지 하 철 : 2호선 삼성역 하차(6번 출구) 도보 10분
3. 교육내용 Sing in Game  
찬불가 I - 권장 찬불가로 불교학교를...  
찬불가 II - 신 찬불가와 율동  
풍선장식  
몸풀기 체조 및 Rec Dance  
Game(New Sports)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춧돌의식
4. 참가비 : 일반 40,000원 / 회원 30,000원 / 군중 및 제주도(도서벽지) 20,000원
5. 접 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온라인 구좌 : 국민은행 006-01-0801-77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농 협 053-02-177171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6. 문의 및 접수 : ☎ 02-738-7860(대), 739-4967 (본회 사무국) FAX. 02-738-7863  
http://cafe.daum.net/burec (본회 다음 카페)

※ 준비물 : 이불(큰타올),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 정원 : 24명 ~ 30명 내외
- ◆ 시설개요 : 본 건 물 →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론 설치)  
→ 오락실, 체력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락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지도자 자광원**

**보살 염불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들 위한 지도처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 불명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지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 > 홀로계신 시아버님,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 자광원에서 해결하여 드립니다.